

고려 혜종의 생애와 박술희

김 명 진*

- I. 머리말
- II. 태조·장화왕후의 혼인과 무(혜종)의 탄생
- III. 무의 후계자 수업
- IV. 혜종의 시련과 박술희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 2대 국왕 혜종(무)은 태조 왕건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태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무는 최연위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왕건은 통일 전쟁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 936년 9월)의 준비 작업을 무와 박술희에게 맡겼다. 이 전투는 고려군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무의 입지도 탄탄해졌다. 왕건이 무의 충복으로 선택한 박술희는 지역세력이 아닌 군인 출신이었다. 마침내 무는 943년 5월에 등극하였다. 혜종은 지방제도도 손질 하며 나름 치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등극 직후에 원인모를 불치병을 얻게 되었다. 이를 안 이복동생 요와 소는 자신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왕규는 이를 혜종에게 밀고했으나 혜종은 이를 참소로 받아들였다. 입지가 좁아진 왕규는 혜종을 시해하고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22mjk@hanmail.net

보위에 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945년 9월에 혜종은 병사하였다.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한 정종(요)은 그 다음날에 박술회를 갑곶(강화도)으로 유배 보냈다. 그러자 왕규는 유배 가는 박술회를 정종의 명이라 거짓으로 꾸며 죽였다. 이를 예상한 정종은 자신을 돕기로 약조한 왕식렴의 군사적 지원 아래 왕규를 처단하였다. 박술회는 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따라서 죽어서도 혜종을 보좌한 이가 바로 박술회였다.

◆ 주제어

혜종의 생애, 태조 왕건, 박술회, 왕규, 정종

I. 머리말

高麗 2대 왕인 惠宗 武는 太祖 王建의 맏아들로서 즉위하였지만 재위는 2년 4개월로 단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統一高麗가 탄생되고 이루어진 첫 번째 왕위 계승자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평범하지 않았다. 왕건이 분열의 시기를 종식시키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중심이 된 통일국가를 완성함에 혜종의 역할이 있었다. 그는 고려의 국왕으로서 즉위할만한 도량과 자격을 소유하였다. 그는 고려가 475년간 존속되는데 있어서 첫 단추를 잠근 의미 있는 계승자였지만 건강을 잃어 단명함으로서 생애의 끝은 격랑에 휘말리었다.

혜종은 비록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여러 연구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그간의 혜종에 대한 연구는 혜종·정종·광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을 왕위 繼承戰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혜종이 주목되었으며, 혜종과 정종·광종의 갈등 구조 하에서 천착하려는 시도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¹⁾ 또한 이 시기 중심인물 중 하나인 왕규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하였다.²⁾

그런데 혜종은 아버지 태조 왕건이 그를 후계자로 점지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왕건은 박술희를 혜종의 忠僕으로 정하였고, 박술희는 이를 잘 받들었다. 이러한 기반 속에서 혜종은 고려 통일전쟁기에 공로가 있었다. 만약 혜종이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나름 치세를 장식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이 글은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혜종에 대한 이모저모를 밝혀보려 한다.

먼저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가 아버지 왕건과 어떻게 혼인하게 되었는

1) 하현강, 「高麗惠宗代の政變」『사학연구』20, 한국사학회, 1968; 강희웅,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한국학보』7, 일지사, 1977; 이종욱,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백강녕, 「高麗初 惠宗과 定宗의 王位繼承 -朴述希와 王規의 出身背景과 役割의 再解釋을 중심으로」『진단학보』82, 진단학회, 1996; 김갑동, 「혜종대의 호족과 왕위계승전」『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2) 한정수, 「고려 초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역사와 실학』62, 역사실학회, 2017.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혜종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즉위함에, 그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의 영원한 계승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했던 혜종의 후계자수업은 궁금한 사항이다. 왕건은 혜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인적 보강 차원에서 박술희를 증복으로 정하였다. 여기에 박술희의 보좌 역할이 있었으니, 그 처음과 끝은 그의 태조 왕건과 혜종 무에 대한 충성의 전부였다. 이는 성장한 혜종의 일생과 관련되므로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글의 시대적 중심은 10세기 전반부이며, 선학들의 연구 성과와 관련 자료를 아울러 참고하며 궁금함을 풀어보려 한다.

II. 태조·장화왕후의 혼인과 무(혜종)의 탄생

고려 2대 왕인 惠宗 王武는 태조 왕건과 莊和王后 吳氏 사이에서 태어난 왕실의 맏아들이었다. 왕건은 원래 태봉의 공예왕 휘하에서 장수로 활약했었는데, 첫 혼인을 늦게 하였다. 그는 즉위하기 전에 두 명의 부인을 두었다. 그의 나이 33세 때인 909년 6월 이후에 貞州(풍덕군, 개풍군)에서 큰 부자이자 지역세력(호족)인 류천궁의 딸을 첫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그녀는 훗날 神惠王后로 불리어진 貞州柳氏였다.³⁾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 오씨였다.

왕건이 후백제 영역인 금성군(전남 나주)을 공격하여 태봉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은 때는 903년이였다. 이후 금성군은 나주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탄생하였다.⁴⁾ 그러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후백제의 반격이 계속되었다.⁵⁾ 912

3)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왕건이 정주에 처음 간 것은 909년 6월이므로 이때 신혜왕 후 류씨와 부부의 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류천궁은 정주의 큰 부자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13년 하6월;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 글머리;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신혜왕후 류씨).

년에 나주 관할의 덕진포(전남 영암군 덕진면) 일대에서 양측이 격돌하였다. 이 덕진포전투에서 왕건은 대승을 거두며 나주서남해지역을 공고히 하였다.⁶⁾

나주서남해지역은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의 寶庫이고, 곡창지대이며, 철 생산지도 있었다. 비단 생산과 유통의 중요한 거점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경제적 이익이 많은 지역이었다. 해상교통의 이점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군사적 가치가 높았다. 이 지역을 궁예정권이 장악하게 되면 후백제를 남북에서 압박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 가치는 대단 그 자체였다. 이러한 나주를 장악한 실제 지휘자는 왕건이었다.⁷⁾ 이즈음에 나주에서 왕건은 훗날 장화왕후가 된 오씨를 만나게 된다.

가) 莊和王后 吳氏는 나주 사람이다. 조부는 富佗이고 부친은 多憐君이니 대대로 이 州의 木浦에서 살았다. 다려군은 沙干 連位의 딸 德交에게 장가들어 后(장화왕후)를 낳았다. 후가 일찍이 꿈을 꾸니 포구에서 龍이 와 뱃속으로 들어오므로 놀라 깨어 (이 꿈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얼마 후에 태조(왕건)가 水軍將軍으로서 나주에 진수하였는데 배를 목포에 정박시키고 시냇물 위를 멀리 바라보니 오색구름(五色雲)이 떠 있었다. 가서 본즉 왕후가 빨래하고 있으므로 태조가 불러서 이성 관계를 맺었는데 側微하여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피임 방법을 취하여 정액을) 침실돛자리에 배설하였다. 후는 즉시 그것을 흡수하였으므로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혜종이다. (그런데 그의) 낮에 자리 무늬가 있었다하여 세상에서는 혜종을 ‘주름살 임금(褳主)’이라고 불렀다.⁸⁾

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개평 4년·건화 2년.

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건화 2년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7)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89~93쪽.

8)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장화왕후 오씨, “莊和王后 吳氏 羅州人 祖富佗 父多憐君 世家州之木浦 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 生后 后嘗夢浦龍來入腹中 驚覺以語父母 共奇之 未幾 太祖以水軍將軍 出鎮羅州 泊舟木浦 望見川上 有五色雲氣 至則后浣布 太祖召幸之 以側微 不欲有娠 宣于寢席 后卽吸之 遂有娠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褳主”. 장화왕후 열전에 그녀의 자손은 무(혜종) 한 명만 있는 것으로 나온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장화왕후 오씨는 부유한 집안이었지 않나싶다. 오씨의 조부 富侁이라는 이름은 富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읽혀진다.⁹⁾ 그리고 오씨네는 나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 집안이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관등인 沙干은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8등에 해당하는 沙湊과 같은 것이었다.¹⁰⁾ 그녀는 빨래하고 있다가 왕건과 첫 대면을 하였다. 그 빨래터는 완사천(浣絲泉, 浣紗泉)인데,¹¹⁾ 그 字意가 부드러운 비단을 빨던 샘으로 해석된다. 그녀는 샘가에서 부드러운 비단으로 된 속옷을 빨다가 왕건을 만났던 것이다. 비단 속옷을 입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 오씨였다.

오씨네는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으면서 사간 정도의 지위를 가진 집안이었다. 나주는 영산강을 통해서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친 해상적이었을 터이다. 오씨 집안은 나름 나주 일대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세력이었다. 그런데도 왕건은 그녀를 측미하다하여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왕건은 이미 첫 부인인 류씨가 있는 상태였고 궁에 밑에서 전장 터를 누비던 장수시절에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을 꺼려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당대 큰 부자였던 류씨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씨에게서 자식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첫 부인인 류씨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자식도 없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오씨에 대한 측미는 상대적 측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¹²⁾

사료 가)의 내용을 보면, 왕건과 오씨의 만남이 처음부터 정략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용꿈 같은 신성한 태몽을 꾸 오씨와 신비로운 오색구름(五色雲)같은 祥瑞로운 자연현상에 끌리어 찾아간 왕건의 결합은 계산적이거나 정략적이지 않았다. 다만 왕건은 오씨에게서 2세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적극성으로 인하여 2세가 탄생하였다.¹³⁾ 왕건이 금성군을 처음

9) 강희웅,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韓國學報』7, 1977, 69쪽 주18; 문수진,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成大史林』4, 성대사학회, 1987, 19쪽.

1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대보.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불우, 홍룡사·제영, 신증 십이영.

12) 김명진, 앞의 책, 2014, 101~116쪽.

13) 사료 가)에 소개된 피임법은 한국사 최초의 피임법 기록이다. 왕건이 행한 피임은

공략한 것은 903년이었다. 이후 912년에 왕건과 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武(惠宗)였다.¹⁴⁾

사료 가)는 왕건과 오씨의 첫 만남 이후에 바로 임신이 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김종직의 錦城曲에 의하면, 왕건이 덕진포전투를 승리하고서 당일에 오씨를 만났다고 한다.¹⁵⁾ 덕진포전투는 912년에 발발한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¹⁶⁾ 따라서 두 사람은 912년 초에 만나 그해 말에 무가 태어났다.¹⁷⁾ 만약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다면 오씨의 위치가 다소 불안정했을 수도 있었다. 왕건은 오씨의 임신을 꺼려했지만 막상 아들이 태어남으로서 생각이 바뀌었다. 만아들이 태어남에 왕건에게 오씨는 각별한 존재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후에 류씨가 자손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¹⁸⁾ 또한 무의 탄생은 나주와 왕건에게 깊은 연대성을 가져다주었다.

나) 항상 잠자리에 물을 부어 두었으며, 또 큰 병에 물을 담아 두고 팔을 씻음에 싫증을 내지 않았다하니 참으로 용의 아들(眞龍子, 혜종 무)이었다.¹⁹⁾

위의 사료는 무가 참된 용의 아들 眞龍子로 표현되어 있다.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고 왕씨 왕실에 대한 신성성과 함께 만아들인 무에 대한 신성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는 고려 개국과 그 건국자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위해 필

절외사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피임은 장화왕후 오씨의 적극성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이에 대하여 몇몇 의사에게 문의해보니 오씨가 임신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료 가)에 소개된 혜종의 탄생이야기는 신뢰성이 있다하겠다.

14)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글머리.

15) 『점필재집』 권22, 시, 금성곡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제영, 신증 십이영,

16) 덕진포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島嶼文化』 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8b ; 앞의 책, 2014, 116~134쪽 참고.

17) 임신기간을 감안하면 911년에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김명진, 위의 책, 2014, 102~103쪽 참고.

18)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신혜왕후 류씨.

19)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장화왕후 오씨, “常以水灌寢席 又以大瓶貯水 洗臂不厭 眞龍子也”.

요하였다. 특히 왕씨는 龍孫으로 신성성이 포장되었다. 『고려사』 ‘고려세계’에서는 서해 龍王의 딸인 龍女가 왕건의 할머니이고, 용녀는 黃龍으로 변해 오색구름(五色雲)을 일으켰다고 한다. 당연히 그 자손은 용손이 되었다. 황룡은 중앙을 상징하는 용이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이었다.

왕건의 아버지인 세조의 원래 이름은 龍建이었다.²⁰⁾ 용건의 아들인 왕건이 877년에 태어날 때 집안에 상서로운 형상이 가득하였는데 흡사 용과 같았다고 한다. 더불어 왕건의 얼굴은 용의 모습이었다고 한다.²¹⁾ 사료 가)와 나), 그리고 『고려사』 고려세계를 더하여²²⁾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씨는 용꿈을 꾸고서 왕건과 동침하였다. 왕건은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와 관련된 상서로운 오색구름(五色雲)을 나주에서 보고, 오씨에게 이끌리었다. 그리고 참된 용의 아들, 진룡자 무가 태어났다. 용은 물에서 나오므로 용손인 무가 물을 좋아함은 당연하였다. 그런가하면 무가 태어난 나주에 큰 절을 세워 興龍寺라 했으니,²³⁾ 용이 일어남을 기념한 것이다.

요컨대 서해 용왕 → 용녀(황룡, 왕건의 할머니) → 용건(왕건의 아버지) → 왕건(용의 얼굴) → 무(진룡자)로 이어지는 용손 家系가 완성되었다. 이처럼 龍王-龍女-龍子로 이어지는 신성한 왕실 혈통이 구성되었는데,²⁴⁾ 이 논리는 용건대부터 시작되어 왕건대에 완성되었다. 후대에 왕건을 龍祖, 즉 용의 조상이라 했기에 그리 단정된다.²⁵⁾ 무가 고려 왕실의 첫 번째 계승자가

20) 『고려사』, 고려세계.

2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22) 『고려사』, 고려세계에 의하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과 할머니 용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용녀는 황룡으로 변하여 오색구름을 일으켰다고 한다.

2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불우, 홍룡사.

24)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10쪽; 「高麗 太祖代 八關會 실행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21쪽 참고.

25)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41년 12월 갑신일조에서 왕건을 龍祖(龍祖應期)로 불린 기록을 찾을 수 있다(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66쪽 참고). 이때가 1254년 12월인데 같은 내용인 『고려사절요』 권17, 고종안효대왕 4, 갑인 41년 12월조에는 태조(太祖應期)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조는 곧 태조 왕건이었다.

됨에 용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얻게 되었다.²⁶⁾

그리고 혜종의 武라는 이름은 전쟁의 시기에 어울리는 이름이며, 아버지 왕건의 바램이 배어 있는 듯하다. 할아버지인 世祖 隆²⁷⁾과 아버지 建, 그리고 혜종의 武까지 이름이 한 글자인 外字인데 이후 고려의 왕들은 이름이 외자였다. 이는 하나 또는 으뜸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름을 외자로 했던 것이다.²⁸⁾ 이러한 왕실의 作名 전통도 용건대부터 시작되어 왕건대에 그 예가 정해졌다. 당시 왕건은 큰 아들의 이름인 ‘武’字에 두 가지 의미를 심었다고 여겨진다. 먼저 武는 무적 용맹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는 범(호랑이) 虎와 통한다. 후대의 일이지만 1212년(강종 원년) 7월에 고려에 온 금나라 사신은 明虎大將軍·大理卿 完顏惟基였다.²⁹⁾ 여기서 明虎大將軍은 원래 금나라에서 正4品上인 昭武大將軍인데,³⁰⁾ 혜종의 이름인 武와 광종의 이름인 昭를 피하여 昭武를 明虎로 改字한 것이다.³¹⁾ 즉 武와 虎는 뜻이 통하여 용맹함을 상징하였다.³²⁾

그런가하면 武를 破字하면 止戈인데, 이는 전쟁(戈)을 그치자(止)는 뜻이 된다. 왕건은 928년(태조 11) 정월에 후백제왕 견훤에게 보낸 답글에서 “僕

26) 고려 초 왕실의 용손의식 및 眞龍子 武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 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34~36쪽 참고.

27) 『고려사』 고려세계에 의하면, 왕건의 아버지 이름은 원래 龍建인데 이름을 隆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리고 왕건의 집안 성씨인 王은 바로 아버지인 왕룡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명진, 앞의 책, 2014, 44~46쪽).

28) 덧붙여 고려 왕실의 관단은 避諱 때문에 생길 백성들 作名에 대한 불편함도 덜어 주고자하는 배려도 있었을 터이다. 왕과 그 후계자의 이름이 외자이면 두 글자보다 백성들의 피휘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왕과 그 후계자의 이름은 후대에도 이견 없이 외자로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29) 『고려사』 권21, 세가21, 강종, 원년 추7월 임신.

30) 『금사』 권55, 지36, 백관1, 吏部 武散官, “…… 正四品上曰 昭武大將軍 ……”.

31) 장동익, 『고려사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16, 18쪽.

32) 武는 虎와 뜻이 통하여 용맹스럽다는 뜻도 있다. 또한 唐代에는 당 태조 李虎의 이름을 피하여 虎를 武로 바꾸어 썼다(『漢韓大辭典』 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819쪽 武·826쪽 武牢·829쪽 武步). 따라서 武와 虎가 뜻이 통한다는 인식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亦尙止戈之武 ……”라 하였다.³³⁾ 이 내용은 “이 몸 또한 전쟁을 그치자는 武를 숭상하고, ……”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止戈之武는 止戈爲武이니,³⁴⁾ 전쟁을 그치자함이 곧 武이므로 그 속뜻은 평화인 것이다. 따라서 왕건은 전쟁의 시기에 용맹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만아들의 이름을 武로 선택하지 않았을까한다. 한편, 무의 어머니인 장화왕후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관련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Ⅲ. 무의 후계자 수습

912년에 나주에서 태어난 武(혜종)는 918년에 아버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함에 그 위상이 달라졌다. 왕건이 고려국의 왕이 되었으니 만아들인 무도 그에 걸 맞는 위상이 필요하였다.

다)-①(武의) 나이 일곱 살에 왕위를 이을만한 덕이 있음을 태조(왕건)가 알았으나, 그 모친이 측미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柘黃袍를 담은 옷상자를 후(장화왕후)에게 내려주었다. 후가 (그것을) 대광 朴述熙에게 보이자, 박술희가 그 뜻을 알고서 (무를) 正胤으로 세우자고 청하였다.³⁵⁾

다)-②(921년 12월) 아들 무를 책봉하여 正胤으로 삼았는데, 정윤이란 곧 太子이다.³⁶⁾

무는 다)-①에서 일곱 살에 왕위를 이을만한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33)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천성 3년 정월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춘정월.

34)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1998, 888쪽 주11 ; 『漢韓大辭典』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819쪽 武.

35)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장화왕후 오씨,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 恐母微不得嗣位 以故笥盛柘黃袍 賜后 后示大匡朴述熙 述熙揣知其意 請立爲正胤”.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4년 12월 신유, “冊子武爲正胤 正胤卽太子”.

912년생인 무가 전통 집 나이로 일곱 살이면 이때는 918년이였다. 즉 왕건이 즉위한 해였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무는 어떠한 성장을 했을 것인가 궁금하다. 무가 태어난 이후에 왕건이 나주에 다시 간 것은 914년이었으므로,³⁷⁾ 적어도 이때에 오씨는 무를 데리고 왕건을 따라서 태봉의 도성이었던 철원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무의 외모는 앞에 제시한 사료 가)에서 ‘주름살 임금(禰主)’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미소년의 얼굴을 가지지는 않았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남성적인 외모가 연상된다. 여기에 걸맞게 이름이 무적 능력을 강조한 武였다. 다)-①에서 무는 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무가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어떠한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알 수 없지만, 왕건의 둘째 아들로 기록된 堯(定宗)가 태조 6년(923)에 태어났으니³⁸⁾ 왕건이 즉위하기 전까지 아들은 무 밖에 없었다. 아마도 궁에 밀에서 최고 관직인 시중까지 역임한 왕건³⁹⁾의 아들인 무는 나름 각별한 교육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유학적인 소양과 전쟁의 시기에 생존을 위한 무술 등이 무가 받았을 가능성 있는 교육의 내용이 되겠다.

다)-①을 통해서 왕건이 무를 즉위 직후부터 다음 왕위 계승자로 내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柘黃袍는 산뿔나무의 겹으로 붉게 물들인 袍(겉에 입는 옷)였다. 또한 자황포는 隋 文帝가 처음 입은 뒤부터 黃袍, 즉 황제의 옷으로 불리어졌다.⁴⁰⁾ 따라서 왕건이 장화왕후에게 자황포를 주었다는 것은 무에게 다음 왕위 계승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왕건은 무의 어머니 가계가 측미하여 무가 다음 왕위에 오르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었다. 다)-①과 ②를 보면, 왕건은 918년 개국직후부터 무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 했으나 3년이 지난 921년에 가서야 무가 후계자로 선정

3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8)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글머리.

39) 왕건이 궁에 밀에서 시중을 역임한 것은 913년(건화 3)이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건화 3년 계유).

40) 『漢韓大辭典』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182쪽 자황포.

되었다. 무의 후계자 선정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왕건의 첫째 부인인 신혜왕후 정주류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주류씨의 출생년도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918년 당시에 왕건의 나이가 마흔 둘이었다. 왕건이 정주류씨와 만났던 909년에 왕건의 나이는 서른셋이었다. 따라서 류씨는 왕건보다 대략 10살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류씨가 909년에 삼십대의 노처녀였을 것이라는 설정은 어렵다. 그러므로 류씨가 비록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표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대 큰 부자였던 정주류씨 집안에서 볼 때 나주 오씨는 측미하다고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셋째 부인인 忠州劉氏(神明順成王太后)를 살펴보자. 무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바로 아래 동생들인 충주유씨 소생의 堯(定宗)와 昭(光宗)가 있었다. 왕건의 둘째 아들인 요는 923년(태조 6)에 태어났다.⁴¹⁾ 무를 왕위 계승자로 삼으려한 918년은 물론이고 정윤으로 책봉된 921년에도 요는 태어나지 않았다. 왕건과 충주유씨와의 혼인관계는 자녀의 나이로 보아 왕건이 즉위한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충주유씨 소생의 딸인 安貞淑儀公主(樂浪公主)가 태조 18년(935) 11월에 신라 마지막 왕인 金傅(경순왕)와 혼인을 하였다.⁴²⁾ 공주의 혼인 나이를 감안한다면 왕건과 충주유씨의 혼인은 918년 개국 직후였을 가능성이 높다.⁴³⁾ 충주유씨 측도 역시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옛 고구려 지역이면서 그 후예라는 계승의식이 강했던 수도 개경과 정주가 포함된 예성강 일대 지역세력들의 염려도 있었을 터이다. 고

41)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신명순성왕태후 ;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글머리 ;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글머리.

42)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11월 계축 ; 『고려사』 권91, 열전4, 공주, 태조9년.

43) 충주유씨가 918년에 태조 왕건과 혼인하여 다음 해에 낙랑공주를 낳았다면, 935년에 공주의 나이는 1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낙랑공주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였던 것이다.

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첫 후계자가 고구려 지역과 관련된 왕비의 자손이어야 마땅한데 옛 백제지역의 나주오씨 아들인 무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왕건은 이러한 추정 가능한 반대 이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를 후계자로 정하였다.

왕건이 무를 후계자로 정함에 몇 요소가 그의 의지를 결정지었다. 앞서 궁예는 부인 강씨와 그 소생인 자신의 아들 둘을 함께 죽임으로서 폭군으로 인식되어 몰락의 큰 이유가 되었다.⁴⁴⁾ 왕건은 일찌감치 후계자를 선정하고 이를 공고히 함으로서 왕권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궁예가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지켜본 왕건은 좀 더 안정적이며 확고한 후계체계를 갖추고 싶었다. 왕건은 궁예의 실패를 거울삼았다. 물론 여기에는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무의 나이 일곱 살에 벌써 왕위를 이을만한 덕을 갖추었음을 태조가 알았다는 내용이 그리 해석하게 한다.

그리고 왕건이 즉위한 첫 해에 모반이 6차례나 발생하였다. 그 모반은 918년 6월의 환선길, 같은 달 이혼암, 7월의 청주(충북 청주), 8월의 웅주(충남 공주)와 운주(충남 홍성), 9월의 임춘길, 10월의 진선 등 모두 6차례였다.⁴⁵⁾ 왕건은 이를 모두 무사히 진압했지만 연이은 모반도 왕건으로 하여금 후계구도를 빨리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직 무의 나이가 7살이라 빠른 감이 있었지만 왕건은 후계구도를 확실히 함으로서 정권의 안정화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기에 바로 강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태조 4년(921) 12월에 가서야 무를 정식으로 후계자인 정윤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다)-②는 알려준다. 이때 무의 나이는 10살이었다.

왕건이 원하는 대로 후계구도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다. 태조 4년(921)이 되도록 다른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도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모반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

44)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45) 고려 개국 초 모반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7~11쪽 참고.

으며 왕씨 왕실은 안정되었다. 이제 왕건은 자신의 의중대로 무를 후계자인 정윤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왕건의 실질적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는 반증도 되는 일이었다. 그런가하면 왕건이 무를 다음 왕위 계승자로 세웠기 때문에 장화왕후의 고향인 나주서남해지역이 고려 중앙정부와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왕건에게 있어서 통일전쟁 승인의 한 부분이 되었다.⁴⁶⁾ 이러한 후계 구도 과정 속에서 무를 잘 보좌할 충복으로 왕건은 박술회를 내정하였다. 그에 대한 기술은 다음 장에서 하려 한다.

그렇다면 왕건은 무에 대한 후계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을지 궁금하다. 당시 고려 국왕 계승자를 正胤이라 했으니, 이 명칭에 대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윤은 곧 太子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아들은 25명인데 그 중에서 태자로 불리어졌던 인물은 여럿이었다.⁴⁷⁾ 태자라는 말이 곧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자가 여럿이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그런데 다)~㉔의 태자는 원래 皇太子인데 ‘皇’字가 누락된 것이고, 정윤은 그 뜻이 바른 혈통의 아들 또는 정통을 계승할 아들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⁴⁸⁾ 덧붙여 正胤은 嫡長子(맏아들) 계승자라는 뜻도 있다. 요컨대 참된 용, 진짜 용손(진룡자)으로서 ‘바른 혈통인 맏아들 계승자’라는 뜻⁴⁹⁾을 가진 정윤으로 책봉된 황태자가 무였다. 태자는 여럿인데 황태자는 1명이었던 것이다.

고려 개국 직후부터 무는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겠지만 본격적인 교육은 정윤으로 책봉된 921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원래 궁예는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위상 확립 및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朴儒(王儒)가 궁예 밑에서 맡은 직책이 東宮記室이었다. 그는 經書와 史書에 통달한 유학자였다.⁵⁰⁾ 그리고 왕건이 즉위한 918년 6월에 東宮이라는 단어가 발견된

46) 김명진, 앞의 책, 2014, 116쪽.

47)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태조 25자.

48) 장동익, 앞의 책, 2014, 166~167쪽.

49) 正胤의 字意에 대해서는, 『漢韓大辭典』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800쪽 正胤; 『漢韓大辭典』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400~401쪽 胤 참고.

50) 『고려사』 권92, 열전5, 왕유; 전기용,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다.⁵¹⁾ 그러므로 궁예의 태봉에서 다음 왕위 계승자는 東宮이라 불렸으며 그 머무르는 곳 또한 동궁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궁기실은 동궁의 文翰에 관한 일 또는 기록을 담당한 직책이라 추정해 보고 싶다. 박유의 학식과 동궁기실이라는 직책의 字意를 유추하면 그리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하겠다.

이러한 동궁에 관한 사항들이 그대로 고려로 이어졌다. 935년(태조 18) 11월에 무를 東宮이라 지칭한 기록이 보인다.⁵²⁾ 그리고 982년(성종 원년) 6월의 최승로 上書文에 무를 春宮이라 지칭한 기록이 있다.⁵³⁾ 따라서 고려 태조대의 다음 왕위 계승자에 대한 거주공간과 호칭은 이렇다. 무는 東宮에 머물며 정윤 또는 동궁·春宮으로 불리어졌었다. 봄(春)은 상식적으로 방위상 동쪽이고, 인생에서 젊음을 상징한다. 다음 왕위 계승자인 젊은 정윤은 동궁 또는 춘궁이라고도 했던 것이다.

다시 박유를 살펴보면, 그는 궁예 정권 말기에 출가하여 산골짜기에 숨어버렸다가 왕조가 바뀌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왕건은 박유를 후대하여 그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었다.⁵⁴⁾ 박유는 왕유가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정윤 무는 왕유(박유)같은 유학자의 가르침 속에서 경서와 사서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당시 전쟁의 시기였으므로 병법공부 및 무적능력 배양 같은 것도 정윤이 갖추어야 될 교육이었다. 그런데 정윤 무의 교육을 오로지 했을 학자는 따로 있었다.

崔彦擲(868~944)는 18세인 885년에 당에 유학하였고, 906년에 당에서 과거(賓貢科)에 급제하였다. 그는 909년(신라 효공왕 13)에 귀국하여 執事省侍郎·瑞書院學士에 임명되었다.⁵⁵⁾ 최언위는 당시에 최치원·최승우와 함께

1996, 95~99쪽 참고.

5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을축일 조서.

52)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11월 계묘.

53) 982년 6월에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린 상서문에서 즉위 이전의 혜종 무를 동궁 또는 춘궁이라 호칭하였다. 그는 태조 왕건대부터 중앙에서 활동했으므로 그가 무를 춘궁이라 했으니 태조대에도 춘궁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으리라 판단된다(『고려사』 권9 3, 열전6, 최승로 ;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임오 원년 6월).

54) 『고려사』 권92, 열전5, 왕유.

文翰으로 이름이 높아 三崔로 불리어졌던 학자였다.⁵⁵⁾ 그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왕건에게 귀부하여 태자(정운)의 스승인 太子師傅가 되어 文翰을 담당하였다.⁵⁷⁾ 그런데 『고려사절요』 그의 卒記에는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935년에 그도 고려에 귀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⁵⁸⁾ 『삼국사기』 열전과 『고려사』 열전에서는 왕건이 고려를 개국한 직후에 그가 고려에 귀부한 것처럼 묘사하였다.⁵⁹⁾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에 법경대사 慶猷가 871(함통 12)년에 태어나 51세인 921년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한 경유의 在學弟子 명단에 神聖大王(왕건)과 최언위가 등재되어 있다.⁶⁰⁾ 최언위가 경유의 재학제자였던 것은 921년 이전의 일이 되므로 그가 고려에 귀부한 시기도 이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다.⁶¹⁾ 그는 918년부터 921년 사이에 고려로 귀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개국 직후에 최언위가 고려에 귀부했다고 하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관련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하겠다. 왕건은 고려에 귀부한 최언위를 태자사부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무의 교육을 오로지 했을 학자는 태자사부 최언위였다.

무는 다음 왕위 계승자로서 그에 걸맞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21살이 되자, 왕건은 무에게 북쪽 변경을 순행하도록 하였다. 무가 순행한 북쪽 변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경(평양) 북쪽이 아닐까한다. 이때가 932년(태조 15) 7월이었다.⁶²⁾ 무는 고려 국왕의 후계자로서 궁궐 안에서 행해진 교육을 넘어서서 밖으로 그 위세를 보이는 행보를 하였다. 이제 왕건은 성년이 된 무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였다.

55) 『고려사』 권92, 열전5, 최언위.

56) 장동익, 앞의 책, 2014, 184쪽.

57) 『고려사』 권92, 열전5, 최언위.

58)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갑진 원년 동12월.

59)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 부 최언위 ; 『고려사』 권92, 열전5, 최언위.

60)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123~145쪽.

61) 장동익, 앞의 책, 2014, 184~185쪽.

62)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추7월.

당시 무는 안에서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순행을 통해서 밖으로 그 위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930년에 무의 母鄉인 나주가 후백제 수중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왕건이 929년(태조 12) 12월부터 930년 1월 사이에 발발했던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대승을 거두고 경상지역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⁶³⁾ 하지만 견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930년 같은 해에 나주를 공략하여 성공하였다.⁶⁴⁾ 견훤은 경상지역에서 큰 손실을 입었지만 대신 나주서남해지역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나주가 모향인 무에게 큰 타격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왕건은 무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리하여 북쪽 변경을 순행하게 했던 것이다.

이 후 935년 3월에 후백제는 격랑에 휩싸였다.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전북 김제)에 가두고 왕위에 올랐다.⁶⁵⁾ 왕건은 이를 기회삼아 다음 달인 4월에 유금필을 시켜 후백제로부터 나주를 탈환하였다.⁶⁶⁾ 같은 해 6월에 견훤이 탈출하여 나주로 왔다. 왕건은 견훤을 개경으로 데려왔다.⁶⁷⁾ 이렇게 해서 무의 모향 나주가 다시 고려의 수중으로 돌아옴에 무의 입지는 높아졌다. 이제 후백제는 여러모로 불리한 정세를 안고 있었다. 왕건은 무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다. 일리천전투(경북 구미)는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이면서 가장 많은 수의 군사가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왕건은 그 준비작업의 책임자로 무를 선정하였다.

라) (936년 6월에) 먼저 정윤 무와 장군 술희를 보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가게 하였다.⁶⁸⁾

6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13년 정월.

64) 935년(태조 18)에 6년 동안이나(六年之間) 나주의 40여 군이 후백제에게 넘어갔다는 기록(『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미 18년 하4월)을 통해서, 나주의 주인이 바뀐 해가 930년이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몇 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창군전투가 1월에 끝났으므로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김명진, 앞의 논문, 2008b : 앞의 책, 2014, 139~140쪽).

6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춘3월.

66)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미 18년 하4월.

6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하6월.

936년 9월에 일리천전투가 벌어졌는데,⁶⁹⁾ 그 3개월 전에 선발대 겸 준비부대 성격의 군사 1만이 천안부(천안도독부, 충남 천안)에 다다르고 있었음을 사료(라)가 알려준다. 왕건은 그 책임자로 정윤 무를 택했으며, 장군 박술희로 하여금 무를 보좌토록 하였다. 이 전투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기만술이었다. 고려군은 마치 천안부에서 후백제를 향하여 남쪽으로 直攻할 듯하다가 갑자기 동쪽의 일리천으로 군사를 돌렸다. 왕건은 일리천으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끌어들었다. 이때 무는 천안부에 남아 후백제군을 위협하였고, 박술희는 왕건을 따라 일리천으로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고려군은 일시에 후백제군을 무너뜨리며 대승을 거두고 통일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⁷⁰⁾

당연히 이 전투의 준비작업을 잘 마친 무의 입지는 더욱 탄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는 고려 통일전쟁 승리에 대한 공이 일등이라 하였다.⁷¹⁾ 그는 자신의 공로가 컸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왕위 계승자로서의 입지도 확고하게 되었다. 이제 정윤 무는 준비된 국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었다.⁷²⁾

6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하6월, “先遣正胤武將軍述希領步騎一萬趣天安府”.

69)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7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일리천전투에 박술희는 참전하였지만 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는 천안부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일리천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 『한국중세사연구』25, 한국중세사학회, 2008a : 앞의 책, 2014 참고.

71)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글머리.

72) 왕건이 임종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안팎의 중요 사무들을 卿들이 무와 함께 처리하고 나서 나에게 보고하라” 하였다(『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5월 정유). 이를 통해 무가 국정을 맡을 수 있도록 이미 훈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혜종의 시련과 박술희

태조 왕건은 고려 왕실의 영원 존속을 위하여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였다.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다음 왕위를 맏아들인 正胤 武에게 전수하였다. 고려 2대 왕으로 등극한 무는 뒷날 혜종으로 불리게 되었다. 혜종을 으뜸으로 보좌한 이는 朴述熙(朴述希)였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918년부터 박술희로 하여금 무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사료 다)-①을 통해서 그 같은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박술희의 이력은 특이하였는데 다음 사료가 이를 설명해 준다.

마) 朴述熙는 혜성군 사람이니 아버지는 大丞 朴得宜이다. 박술희는 천성이 용감하였고, 고기 먹기를 즐김에 비록 두꺼비와 땅강아지·개미에 이르기까지라도 다 먹었다. 18세에 궁예의 衛士가 되었으며 후에 태조(왕건)를 섬기면서 여러 번 군공을 세워 대광이 되었다. …… 태조가 죽음에 임박해 (그에게) 軍事와 나랏일을 부탁하며 유언하기를, “경이 태자(무)를 받들어 세웠으니 잘 輔佐하라!”고 하였다. 박술희는 한결 같이 유언대로 하였다.⁷³⁾

박술희는 혜성군 출신인데, 혜성군은 아산만의 남쪽에 자리한 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일대에 있었다.⁷⁴⁾ 그의 아버지 박득의에 대한 흔적은 찾아지지 않는다. 아마도 박득의는 아들 술희의 공로로 인하여 생전 또는 사후에 대승의 관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혜성군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약한 이는 복지겸과 박술희였다. 복지겸은 고려 개국 1등공신이었다.⁷⁵⁾ 지리지에 나타나는 혜성군에 대한 연고성은 박술희보다 복지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⁷⁶⁾ 그런가하면 이 지역에서 전해져 온 설화는 복지겸과 관련된 것이 많

73) 『고려사』 권92, 열전5, 박술희, “朴述熙 樸城郡人 父大丞得宜 述熙性勇敢 嗜啗肉 雖蟾蜍蝮蟻 皆食之 年十八 爲弓裔衛士 後事太祖 累樹軍功 爲大匡 …… 太祖臨薨 托以軍國事曰 卿扶立太子 善輔佐 述熙一如遺命”.

7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면천군, 건치연혁.

75) 『고려사』 권92, 열전5, 홍유.

다고 한다.⁷⁷⁾ 아마도 박술희는 일찍 出鄕하여 지역적 연고가 약했던 것이 아닐가한다.⁷⁸⁾

따라서 박술희는 해성군의 지역세력(호족)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료 마)를 통해서 18세에 궁예의 衛士부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사 박술희는 궁예왕의 호위병이었다고 읽혀진다. 그는 어린나이에 고향 해성군에서 출향하여 밀바닥부터 시작한 무관이었다. 그의 특이한 식성으로 보아도 그가 어릴 적부터 거친 삶을 가까이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궁예의 위사가 된 후에 어느 시점부터 왕건의 휘하 무관으로 활동하다가 고려 건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태조 왕건의 신임을 받아 혜종 무를 옹립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고 이해된다. 박술희는 지역세력이 아닌 밀바닥부터 시작한 군인 출신이었다.⁷⁹⁾

혜종은 일찍부터 다음 왕위 후계자인 정운으로서 잘 준비되어 왔다. 그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었는데, 특히 전쟁의 시기에 무적 능력도 뛰어났다. 또한 그는 자객을 맨손으로 때려눕힐 정도의 완력 및 手搏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⁸⁰⁾ 『冊府元龜』에 의하면, “혜종은 쇠로 된 갈고리를 폼다, 구부렸다할 정도의 勇力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⁸¹⁾ 이를 통해 혜종은 원래 매우 건강한 신체조건 속에서 준비된 국왕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거기에 사료 마)에 나타나 있듯이 아버지 태조 왕건의 신뢰 속에서 박술희 같은 충복의 보좌를

7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면천군, 인물.

77) 면천지역에서의 복지겸 관련 설화는, 김갑동, 「羅末麗初의 沔川과 卜智謙」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62쪽 ; 이인화, 「沔川 卜智謙 전설의 민속지리학적 재검토」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17권 제3호, 2007 참고.

78) 김명진, 앞의 논문, 2012, 25~26쪽.

79) 백강녕, 「高麗初 惠宗과 定宗의 王位繼承 -朴述希와 王規의 出身背景과 役割의 再解釋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1996, 87쪽 참고. 한편, 박술희 집안이 해성군의 유력 해상호족 세력이라는 견해도 있다(한정수, 「고려 초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21쪽 주41).

80) 왕규가 밤에 자객들을 들여보냈는데, 혜종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을 한 주먹에 때려 죽였다(一拳斃之)고 한다(『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을사 2년). 이는 혜종의 완력이 대단했으며 손 무술인 수박에도 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81) 『冊府元龜』 권997, 외신부42, 勇鷲 ; 장동익, 앞의 책, 2014, 419쪽.

받았다.

혜종은 통일전쟁에서 나름 공로가 있었다. 또한 그는 後晋과 무난하게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⁸²⁾ 사료 마)를 통해서 軍事는 즉위 직후에 박술희의 보좌를 받으며 잘 작동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가하면 945년(혜종 2)에 후진이 고려에 보내온 칙서에는 그 전 해에 혜종이 후진에게 보낸 물품 목록이 적혀 있다. 그 목록에 무기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⁸³⁾ 이는 고려 국방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혜종이 945년 9월에 사망하고 定宗이 즉위하였는데,⁸⁴⁾ 정종은 다음 해인 946년(정종 원년) 어느 날, 단 하루 동안에 곡식 7만석을 여러 큰 사원들에게 헌납하였다.⁸⁵⁾ 이 행위가 946년의 봄 또는 여름이었다면 혜종 재위 시인 945년에 큰 풍년이 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의 묵은 곡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가을 또는 겨울이었다면 정종 재위기인 946년에 수확한 곡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946년의 수확물이라 하더라도 그 전해에 흉년이 들었다면 정종의 행위는 일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혜종 재위기간에 고려의 식량사정, 즉 나라 경제는 좋았다고 판단된다.

태조 왕건이 936년(태조 19) 9월에 삼한일통을 완성하고,⁸⁶⁾ 940년(태조 23) 3월에 州·府·郡·縣의 명칭들을 개정하였다.⁸⁷⁾ 왕건은 고려의 영원 존속을 위해 국가통치의 기본인 지방제도를 손질하였던 것이다. 이후 계속해서 지방제도가 손질되어지지만, 그 첫 개정이 혜종대에 이루어졌다. 혜종은 944년(혜종 원년)에 자신의 모향 영향권인 무안현(전남 무안)을 勿良郡으로 개정하였다.⁸⁸⁾ 혜종은 나름 지방제도를 손질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혜종의

82)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원년·2년.

83)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2년.

84)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2년 추9월·『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글머리.

85)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원년·이제현 찬.

8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8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3년 춘3월.

88) 백제의 물야혜군을 신라가 승자가 된 후에 무안현으로 고쳤다. 이를 혜종이 물량군으로 고친 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무안현, 건치연혁).

재위 출발은 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혜종의 또 다른 廟號는 太宗이었다.⁸⁹⁾ 대체로 태조와 견줘지며 건국에 큰 공로가 있는 왕의 사후에 붙여지는 묘호가 태종이었다. 따라서 혜종은 나름 공로와 치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 (945년에) 어느 날 王規가 왕의 아우인 堯(정종)와 昭(광종)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참소하였으나, 왕은 무고임을 알고 (요와 소에게) 은혜로 대우함이 더욱 도타워졌다. 이때에 이르러 사천공봉 崔知夢이 아뢰기를, “유성이 자미성을 범했으니, 나라에 반드시 역적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왕은 왕규가 요와 소를 해치려는 모략인 줄 짐작했으나 역시 왕규를 죄주지 않고 이내 만공주를 소의 아내로 삼아 그 세력을 강성하게 하였다.⁹⁰⁾

혜종은 재위기간이 짧은 것에 짝하여 관련 사료도 소략하게 남아 있다. 위의 사료 바)는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혜종 2년(945)의 일부 내용인데, 정확한 月은 생략되어 있다. 王規가 왕의 이복동생인 충주유씨 소생의 요와 소를 참소하였다고 한다. 그 참소 내용은 아마도 “요와 소가 모반 내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혜종은 이를 왕규의 무고로 인식하였다. 왕규는 본래 廣州(경기도 광주)의 지역세력이었다.⁹¹⁾ 그는 태조 왕건을 섬겨 통일전쟁에서 공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왕규는 大匡 벼슬까지 했다. 그의 두 딸은 태조의 15비(廣州院夫人)와 16비(小廣州院夫人)가 되었는데, 16비의 소생이 廣州院君이었다.⁹²⁾ 광주원군은 혜종의 또 다른 이복

89)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41년 동10월 무자 ; 장동익, 앞의 책, 2014, 411쪽.

90)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을사 2년, “一日 規譖王弟堯及昭 有異圖 王知其誣 恩遇愈篤 至是 司天供奉崔知夢 奏 流星犯紫微 國必有賊 王 意規謀害堯昭之應 亦不罪規 乃以長公主妻昭 用強其勢”.

91) 王規를 廣州 관할인 양근군의 지역세력 咸規(『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양근군, 인물, 고려 함규)와 동일인물로 본 견해들이 있다(강희웅, 앞의 논문, 1977, 81쪽 주49 ; 김갑동, 『해종대의 호족과 왕위계승전』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60 쪽 ; 장동익, 앞의 책, 2014, 334쪽 ; 한정수, 앞의 논문, 2017, 8~15쪽). 이는 일리 있는 견해라 하겠다.

92)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왕규 ;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태조 광주원

동생이었다.

여기에 더해 왕규는 또 다른 딸(後廣州院夫人)을 혜종에게 들이었다. 왕규의 자녀가 모두 몇인지 기록에 없지만 딸 셋이 고려 1대·2대 국왕과 혼인하였다. 한편, 혜종은 后妃가 넷이었다. 첫 번째 의화왕후 임씨는 고려 건국 직후에 군사 업무를 관장하였던 진주임씨 집안인 林曦의 딸이었다. 그녀는 흥화군, 경화궁부인, 정현공주를 낳았다. 두 번째 부인이 후광주원부인이고, 세 번째 부인은 청주원부인 김씨였다. 청주원부인은 청주(충북 청주) 김공률의 딸이었다. 네 번째 부인은 宮人 애이주인데, 왕제와 명혜부인을 낳았다. 이처럼 혜종은 모두 아들 둘과 딸 셋을 두었다.⁹³⁾ 이 같은 혜종의 가족관계는 즉위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재위 기간이 짧은 데다가 주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판단된다. 혜종의 투병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겠다. 그런데 박술희는 딸이 없었다.⁹⁴⁾ 만약 박술희가 딸이 있었다라면 혜종의 妃로 들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딸이 많았던 왕규는 곽혼인을 통해 세 딸을 태조와 혜종, 즉 父子 국왕의 妃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혼맥으로 보아 당시 왕규의 위치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의 임종 즈음에 옆에 있었던 몇 신하 중의 한 명이 왕규였다.⁹⁵⁾ 이러한 왕규가 요와 소를 의심한 것은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그는 태조가 살아 있을 적에 총애도 받고, 자신의 두 딸이 태조의 비가 되어 광주원군이라는 용손을 낳았으므로 상층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태조가 사망한 뒤에도 혜종의 두 번째 비인 후광주원부인이 자신의 딸이므로 계속해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후광주원부인은 소생이 없었으나, 혜종의 바로 아래 아우인 요와 소가 성인으로 성장하였다. 요와 소는 충주유씨 가문의 외손이었다. 이때, 혜종의 몸에 큰 이상이 왔다는 것을 요와 소가 알았던 것 같다. 당연히 왕규도

부인 왕씨·소광주원부인 왕씨.

9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혜종.

94) 『고려사』 권92, 열전5, 박술희.

9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6년 5월 정유.

후광주원부인을 통해 혜종의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언질을 받았을 터이다. 이러한 때에 왕규는 뭔가 요와 소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정보를 포착한 것이 아닐까한다. 요와 소는 만약 혜종이 건강 때문에 큰 변고가 생긴다면 자신들이 다음 보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당연히 혜종의 두 아들은 자신들보다 어렸을 터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황상 왕규가 요와 소의 의문스런 행동을 혜종에게 고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왕규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바)에서 혜종은 이를 무고로 인식하고 요와 소를 더욱 은혜롭게 대하였다.⁹⁶⁾ 그리고 자신의 만공주를 소와 혼인하도록 하였다. 이때 박술회는 혜종의 행동에 적극 동조했을 것이다. 이는 사료 마)에 박술회가 한결 같이 태조의 부탁을 받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리 판단된다. 이 일로 인하여 왕규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혜종의 득병 ⇒ 요와 소의 탄 마음 ⇒ 왕규의 밀고 ⇒ 혜종, 왕규의 밀고를
참소로 간주 ⇒ 왕규의 위기의식과 탄 마음

왕규는 만약 혜종이 병사하고 요와 소 중에서 차기 국왕이 나온다면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그가 요와 소의 탄 마음을 혜종에게 밀고했기에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면서 자신이 계속 상층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의 생각은 사료 사)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 (945년에) 왕규가 廣州院君을 왕으로 세우려고 도모하여, 일찍이 밤에

96) 혜종이 모반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소극적인 태도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 이는 혜종이 아무런 세력이 없었기에 소극적인 자기방어 이외 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현강, 「高麗惠宗代의 政變」 『사학연구』 20, 한국사학회, 1968, 197쪽). 이 견해는 박술회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따르기 어렵다.

왕이 깊이 잠들었는가를 엿보고 자기편을 보내어 (왕의) 침실 안으로 몰래 숨어들어 왕을 해치려고 하였는데, 왕이 (잠에서) 깨어나 한 주먹으로 그들을 때려죽이고 측근에서 시중하는 신하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묻지 않았다.⁹⁷⁾

사료 사)도 정확한 달은 알 수 없지만, 바)와 같은 해인 혜종 2년(945)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료 바)의 일이 벌어진 바로 다음 사건이 사료 사)였다. 왕규는 자신과 집안의 계속된 변영을 위하여 무모한 일을 벌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혜종은 병환 초기라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혜종은 한 주먹으로 자객들을 해치우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다.

아) (945년에) 어느 날 왕이 (병환으로) 미리 피하여 神德殿에 있는데, 崔知夢이 또 아뢰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변고가 있을 것이니 곧 옮기셔야 합니다”하므로, 왕이 몰래 重光殿으로 옮기었다. 왕규가 밤에 사람을 시켜 벽에 구멍을 뚫고 (왕의 침실에) 들이니, 침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왕은 왕규가 한 짓인 줄 알면서도 역시 그를 죄주지 않았다. 그 후에 왕규가 최지몽을 보자 칼을 빼들고 욕하기를, “임금이 침실을 옮긴 것은 반드시 너의 꾀일 것이다”하였다. 왕은 왕규의 역모가 있는 후로는 의심하고 꺼려하는 바가 많아 항상 甲士에게 호위하도록 하고, 기뻐하고 성냄이 일정치 않았다.⁹⁸⁾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질문이 있다. 왜 혜종은 계속되는 왕규의 모반을 눈감아 주었을까하는 점이다.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혜종은 아버지 태조로부터 至親 간에 피를 보지 말고 友愛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터이다. 궁예가 부인과 자기 자식을 해침으로서 결국 몰락한 것을 왕건은 보았다. 또한 견훤

97)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을사 2년, “王規 謀立廣州院君 嘗夜 伺王睡熟 遣其黨 潛入臥內 將行大逆 王 覺之 一拳斃之 令左右曳出 不復問”.

98)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을사 2년, “一日 王 遑豫 在神德殿 崔知夢 又奏 近將有變 宜以時移御 王 潛徙重光殿 規 夜使人 穴壁而入 寢已空矣 王知規所爲 而亦不罪之 後規 見知夢 拔劍罵之曰 上之移寢 必汝謀也 王 自王規謀逆之後 多所疑忌 常以甲士自衛 喜怒無常”.

도 부자간 불화와 자식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하여 몰락했기에 왕건은 장자인 혜종에게 엄하게 지친 간의 화목을 주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여 혜종의 부인인 후광주원부인은 아버지 왕규에 대한 구명을 했을 터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왕규는 일단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왕규는 생각이 달랐다. 후광주원부인에게는 소생이 없고,⁹⁹⁾ 소광주원부인(16비)에게는 광주원군이라는 소생이 있었다.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이면서 태조의 龍孫이고 혜종의 이복동생인 광주원군을 발판삼아 자신의 입지를 계속해서 높이려 하였다. 그런데 건강했던 혜종은 병이 들고 말았다. 왕규는 후광주원부인을 통해서 혜종의 건강상태를 눈치 채고서 계속 왕의 시해를 노렸지만 실패하였다.

결국 945년 가을 9월에 혜종은 병환으로 위독해지고 무신일(15일)에 사망하였다.¹⁰⁰⁾ 혜종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견해들도 있다.¹⁰¹⁾ 하지만 혜종이 타살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훗날 현종의 피란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피란을 갔는데 종착지는 御鄕인 나주(전남 나주)였다. 현종이 나주에 도착한 것은 1011년(현종 2) 정월이었다.¹⁰²⁾ 이는 앞선 국왕 혜종의 탄생지인 어항이 나주였기 때문이다. 만약 혜종의 죽음에 미심쩍은 바가 있었다면 현종이 나주를 피란지로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⁰³⁾ 따라서 혜종은 비록 스트레스는

99) 만약 후광주원부인에게서 소생이 있었다면 왕규는 모반하지 않고 그 왕자를 보위에 앉히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100) 『고려사』 권2, 세가2, 혜종, 2년 추9월.

101) 혜종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견해 소개는,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고려사』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211쪽 참고.

102)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2년 춘정월.

103) 현종의 할머니는 신라 경순왕의 사촌인 신성왕태후 김씨이다(『고려사』 권88, 열전 1, 후비1, 태조 신성왕태후 김씨). 현종은 2살 때 사수현(경남 사천)에서 유배 온 아버지 안종 옥과 생활한 적이 있다(『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임진 11년 추7월). 또한 그는 12살에 大良院君에 봉해졌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글머리). 대량원군의 대량은 경남 합천을 말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합천군, 건치연혁). 따라서 현종은 경상도의 경주, 합천, 사천 등에 연고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전라도 나주로 피란 온 이유는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있었겠지만 자연사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건강이 넘쳤던 혜종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혜종은 열 살(921)에 정운으로 책봉되고, 서른두 살(943)에 즉위했는데 앞에서 기술했듯이 강한 힘을 가진 건강체였다. 그러나 그는 즉위한 다음 해부터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2년 간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혜종의 건강상태는 왕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최승로가 전하고 있다.¹⁰⁴⁾ 박술회는 한결 같이 태조의 顧命대로 혜종을 잘 포필하였지만 불치병을 앓으니 난감하였을 터이다. 불치병을 앓고 있던 혜종에게 박술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마침내 혜종은 34살에 病死하였다. 묘호는 惠宗이라 하였으며, 順陵에 장사지냈다. 혜종이 죽은 무신일, 당일에 왕의 아우 堯(定宗)는 신하들 추대에 힘입어 즉위하였다.¹⁰⁵⁾

정종은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혜종이 후사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혜종은 젊었기에 비록 병이 들었지만 원래 강골이라서 자신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안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후사를 미처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는 아들이 너무 어려서 후사를 서두르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친 요 성향이었을 일정 수의 신하들은 요를 추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요 자신의 의지가 강했을 것이다. 물론 박술회는 비록 어리지만 혜종의 아들(흥화군 또는 왕제)을, 왕규는 자신의 외손인 광주원군을 각각 왕위에 앉히기를 원했을 터이다. 여기에 불행의 싹이 있었다.

이때 박술회와 왕규는 목숨을 잃었다. 이틀 사이에 큰 변고가 벌어졌다. 관련 사료를 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혜종이 사망한 당일인 무신일(15일)에 즉위한 정종(요)은 그 다음날인 기유일(16일)에 전격적으로 박술회를 모반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 보고서 갑곶(강화도)으로 유배를 보냈다. 박술회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혜종의 아들 옹립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때문이다.

104)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105)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글머리.

것이다. 따라서 정종은 박술회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인물이었기에 그를 유배 보냈다. 그러자 왕규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왕규는 유배 가는 박술회를 새로운 국왕(정종)의 명이라 거짓으로 꾸며 그를 죽였다. 다음 수순은 왕규의 정종(요)과 소 제거였을 터이다. 왕규는 앞서 자신이 요와 소를 참소했기에 이들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왕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이를 예상한 정종은 사전에 자신을 돕기로 약조한 서경(평양) 왕식렴(왕건의 사촌동생)의 군사적 지원 아래 왕규를 감곳으로 유배 보냈다. 이어서 정종은 왕규와 그 무리 3백여 명도 처단하였다.¹⁰⁶⁾

아마도 혜종의 죽음과 정종(요)의 즉위, 박술회·왕규의 죽음은 무신일(15일)과 기유일(16일) 이틀에 걸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왕규 무리의 제거는 며칠 더 소요됐으리라 추정된다. 아무튼 945년 9월은 피의 달이었다. 혜종은 건강했더라면 나름 치세를 장식할 유능한 왕이었지만 격랑에 휩싸이면서 짧은 재위를 마쳤다. 박술회는 태조 왕건과 그 뒤를 이은 혜종까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다. 그는 뒤에 嚴毅란 시호를 받고 太師 三重大匡 벼슬에 추증되었으며 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¹⁰⁷⁾ 따라서 죽어서도 혜종을 보좌한 이가 바로 박술회였다.

V. 맺음말

高麗 2대 왕인 惠宗 武는 太祖 王建의 맏아들로서 즉위하였지만 재위는 2

106)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글머리 ; 『고려사』 권92, 열전5, 박술회·왕식렴 ;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왕규 ; 『고려사절요』 권2, 혜종의공대왕, 을사 2년 추9월. 그리고 박술회가 제거된 것은 정종 즉위 이전이라 한 견해도 있다(김갑동, 앞의 논문, 2005, 73쪽). 한편, 왕규와 함께한 그 무리 3백여 명은 그의 혈족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이종욱,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의 性格」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7쪽).

107) 『고려사』 권92, 열전5, 박술회.

년 4개월로 단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統一高麗가 탄생되고 이루어진 첫 번째 왕위 계승자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평범하지 않았다. 무는 왕건과 나주출신인 장화왕후 오씨 사이에서 912년에 태어났다. 그는 龍孫으로 921년(태조 4)에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아버지 왕건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正胤이 되었다. 정운은 ‘바른 혈통인 맏아들 계승자’를 말한다. 무는 東宮(春宮)으로서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책임진 사람은 도당 유학자인 최언위였다.

왕건은 무가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그런데 930년에 무의 母鄉인 나주가 후백제 수중으로 넘어가는 변이 발생하였다. 이럴 때에 왕건은 무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932년(태조 15)에 북쪽 변경을 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후백제는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935년 3월에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기두고 왕위에 올랐다. 왕건은 이를 기회삼아 다음 달인 4월에 유금필을 시켜 후백제로부터 나주를 탈환하였다. 모항 나주가 다시 고려의 수중으로 돌아옴에 무의 입지는 높아졌다. 이에 더해 같은 해 6월에 견훤이 나주를 거쳐 개경으로 귀부해 왔다.

이제 통일전쟁의 마지막 승부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전투이면서 총력전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의 준비 작업은 936년 6월부터 천안부(충남 천안)에서 행해졌다. 이 준비 작업의 책임자가 정운 무와 장군 박술희였다. 이윽고 936년 9월에 왕건은 천안부를 거쳐 일리천으로 향하였다. 왕건은 일리천으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끌어들여 일시에 이들을 무너뜨리며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무는 천안부에 남아 마치 남쪽으로 직공할 듯하며 후백제군을 위협하였고, 박술희는 왕건을 따라 동쪽의 일리천으로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 당연히 이 전투의 준비작업을 잘 마친 무의 입지는 더욱 탄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는 고려 통일전쟁 승리에 대한 공이 일등이라 하였다. 이제 정운 무는 준비된 국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었다.

박술희는 혜성군(충남 당진군 면천면)이 고향인데 지역세력(호족)이 아닌 밑바닥부터 시작한 군인 출신이었다. 왕건은 박술희를 무의 충복으로 정하였

다. 마침내 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혜종은 순탄하게 등극하였다. 그가 등극하고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 경제는 좋았으며 국방에도 이상이 없었다. 혜종은 지방제도도 손질하며 나름 치적을 쌓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등극 직후에 원인모를 불치병을 얻게 되었다. 이에 시련이 다가왔다.

혜종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복동생인 요와 소는 알았을 터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왕규는 이를 혜종에게 밀고했으나 혜종은 참소로 받아 들였다. 입지가 좁아진 왕규는 혜종을 시해하고 자신의 외손이자 왕건의 용손인 광주원군을 보위에 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945년 9월 무신일(15일)에 혜종은 병사하였다. 무신일 당일에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한 정종(요)은 그 다음날인 기유일(16일)에 박술회를 모반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 보고 갑곶(강화도)으로 유배 보냈다.

그러자 왕규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왕규는 유배 가는 박술회를 새로운 국왕(정종)의 명이라 거짓으로 꾸며 죽였다. 다음 수순은 왕규의 정종과 소 제거였을 터이다. 하지만 당연히 이를 예상한 정종은 사전에 자신을 돕기로 약조한 서경(평양) 왕식렴(왕건의 사촌동생)의 군사적 지원 아래 왕규를 갑곶으로 유배 보냈다. 이어서 정종은 왕규와 그 무리 3백여 명도 처단하였다.

혜종은 건강했더라면 나름 치세를 장식할 유능한 왕이었지만 격랑에 휩싸이면서 짧은 재위를 마쳤다. 박술회는 태조 왕건과 그 뒤를 이은 혜종까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다. 그는 뒤에 嚴毅란 시호를 받고 太師 三重大匡 벼슬에 추증되었으며 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따라서 죽어서도 혜종을 보좌한 이가 바로 박술회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금사』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점필재집』
『冊府元龜』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1998.

『漢韓大辭典』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漢韓大辭典』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고려사』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강희웅,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한국학보』7, 일지사, 1977.

김갑동, 「羅末麗初의 沔川과 卜智謙」『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김갑동, 「혜종대의 호족과 왕위계승전」『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한국중세사연구』25, 한국중세사학회, 2008a.

김명진, 「太祖王建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島嶼文化』32,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08b.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지역과 역사』30, 부경 역사연구소, 2012.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한국중세사연구』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문수진,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成大史林』4, 성대사학회, 1987.

백강녕, 「高麗初 惠宗과 定宗의 王位繼承 -朴述希와 王規의 出身背景과 役割의

- 再解釋을 중심으로』『진단학보』82, 진단학회, 1996.
- 이인화, 「沔川 卜智謙 전설의 민속지리학적 재검토」『한국사진지리학회지』제17권 제3호, 2007.
- 이중욱,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戰과 그 政治的 性格」『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 하현강, 「高麗惠宗代의 政變」『사학연구』20, 한국사학회, 1968.
-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사학연구』107, 한국사학회, 2012.
-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설행과 그 의미」『大東文化研究』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한정수, 「고려 초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역사와 실학』62, 역사실학회, 2017.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1, 경인문화사, 2014.
- 장동익, 『고려사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16.

Abstract

The Life of King Hyejong of Goryeo and Park Sul-hee as Advisor to the King

Kim, Myeong-jin

Taejo Wang Geon was unsparing in his support for his first son Mu, who would be the next king Hyejong and was educated by Choe Eon-wi. Wang Geon assigned Mu and Park Sul-hee the task of preparing for the Battle of Illicheon (Gumi, Gyeongbuk, September 936), which was the final battle of the Unification Wars. This battle led to the consummation of Goryeo's triumph, thereby strengthening Mu's position. Park Sul-hee, whom Wang Geon had picked as a faithful sidekick for Mu, came from a military background, not among the local forces.

At last, in 943, Mu was crowned, but right after his ascension to the throne, he contracted an incurable disease with an unknown cause. His two stepbrothers, Yo and So, became aware of it, and each of them harbored thoughts of succeeding to the throne. Wang Gyu informed on them to Hyejong, who regarded the whistle blowing by Wang Gyu as an enemy frame. Sensing that he was losing ground, Wang Gyu attempted to assassinate Hyejong and enthrone his grandson Prince Gwangju. In the meantime, Hyejong died of an illness in September of 945.

Yo, the newly enthroned king (Jeongjong), banished Park Sul-hee to

Gapgot (Ganghwa). Then, while Park Sul-hee was being carried into exile, Wang Gyu got him killed under pretense of Yo's command. Anticipating that this would happen, Yo killed Wang Gyu with the support of Wang Sik-ryeom who had promised to help Yo. As a result, the death of Park Sul-hee served to aid Hejong.

Key words

The Life of King Hyejong, Taejo Wang Geon, Park Sul-hee, Wang Gyu, Jeongjong